

## 1 본회소식



## 2021 서울미술나눔 장학기금마련전 성공적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69응미)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67전자공학)가 공동주최하고 본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이 주관하는 '2021 서울미술나눔 장학기금마련전'이 지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마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됐다. 10일 진행된 오프닝 행사엔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조완규(48생물) 전 서울대 총장, 아시아기자협회 이형균(59정치) 회장, 서울대총



동창회 이승무(72경제·원쪽사진) 사무총장, 모교 김성희(82회화·가운데사진) 학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권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가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서울대미대동창회는 해오던 전시를 쉬지 않고 다 했을 뿐 아니라, 6500여 명의 미대 동문들의 연락망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1천 명에 달하는 동문들의 작품활동을 총망라한 '서울대 미술인'을 발간했으며, 온라인상에 동문 작품 아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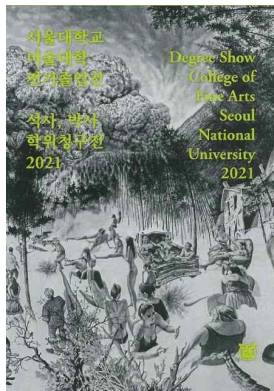
이브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대미대를 나왔다든 것만으로 미술계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다"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책무이자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막식에 앞서 김병중(74회화·오른쪽사진) 모교 명예교수가 '동양회화의 조형 사고'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미술이 감상과 향유의 관점에서보다 노골적인 투자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 이중섭, 박수근의 예에서 보듯 "그림을 보고 순수하게 가슴 설레어,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작품이 빛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청중의 공감을 자아냈다. 미술품 수집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흐름에 맞춰, 서울대 동문들에게 작품소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문 특별할인과 카드결제, 작품가 명시, 작품 구매시 현장에서 바로 포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전에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됐다. 13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약 200명의 동문작가의 300점에 달하는 작품이 출품됐는데, 개막식 이전에 예약하거나 전시 중 전화상으로 구매요청을 하는 등 서울대 동문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 마지막 날까지도 추가되어 판매됐다. 한편 전시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중 일부는 서울대총동창회에 장학기금으로 전달되며 나머지는 본회 창작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모교 소식

2022학년도 전기 졸업전 및 석·박사학위 청구전



모교 2022학년도 전기 졸업전 및 석·박사학위 청구전이 열린다. 학사 졸업전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미술대학 내 공용공간 및 학과별 전공실기실에서 진행되며, 석·박사학위 청구전은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졸업전 및 학위청구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개막행사 없이 진행된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서울대 소식

2년만에 대학축제

정부의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도 지난 11월 2일부터 나흘간 가을축제가 개최됐다. 작년 봄, 가을 서울대 축제는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고, 지난 1학기엔 온라인 비대면 축제가 열렸다. 대면 형식의 축제가 개최된 것은 2년여 만이다. 2일 보컬·힙합 공연 '싱스틸라'를 시작으로, 4일 밴드공연 '폰서트라이브' 1부, 5일 댄스공연 '히트 더 스테이지'와 밴드공연 '폰서트라이브' 2부가 각각 진행되었다. 문화관에서 열린 축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만큼 공연장 입장 인원은 70명 밑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축제 관람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 또는 교내에서 진행하는 신속 분자진단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했다.

SNU 토크콘서트



콘서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재학생, 졸업생, 교수, 총장이 함께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구상해보는 시간을

지난 11월11일, 제2회 SNU 토크콘서트가 '총장님과 함께 그려보는 2040년의 서울대'를 주제로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5월에 열린 제1회 SNU 토크

가졌다. 현장에는 오세정 총장, 웹툰 '무적핑크' 변지민(09디자인) 작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강정구(98경제) 본부장, 권지현(18생물교육) 학생, 권재윤(21중어중문) 학생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방청객을 200명으로 제한하였고, 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과 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제2회 SNU 토크콘서트는 키워드 대담과 '내가 그려보는 2040년의 서울대' 공모전 수상작 소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담에 앞서 오세정 총장은 개회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비하여 서울대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키워드 대담은 사전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추출된 키워드들 중, 패널들이 각자 고른 '리더' '메타버스' '글로벌' 등의 키워드에 대해 번갈아가며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내가 그려보는 2040년의 서울대'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대담에서는 대상 수상자 권재윤 학생의 현장 대담이 진행됐다. 국제화사회공헌/ 최첨단 기술교육/ 공감·소통/ 친환경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변화한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만화 작품을 제작한 권재윤 학생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서울대학교도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토크콘서트와 같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서울대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부금 누적100억 넘어

서울대는 11월 30일 삼익약기 김종섭(66사회사업) 회장으로부터 사회과학대학 리모델링 기금으로 50억원을 기부받아 감사패를 전했다. 김회장이 서울대에 기부한 총액은 누적 100억원을 넘어섰다. 김회장은 서울대 문리과대학총동창회장,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과 ROTC동문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NGO '코피온' 이사장, ROTC 중앙회 명예회장 등 여러 영역에서 공익 활동에 앞장섰다. 오세정 총장은 "모교를 향한 회장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삼익약기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고 사회 공헌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앞장서 오셨음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CIEL DESIGN

인간과 자연, 예술을 사랑하는 (유)시엘 디자인 입니다.

도시민들의 문화향유와 휴식공간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기업 정신입니다.

시엘 디자인은 인간, 자연,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경관디자인 실현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소 : 전북 김제시 두월로 279-12

전 화 : 063-547-3200

1공장 :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37

H . P : 010-4653-6863

2공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19-21

E-Mail: ciel3200@hanmail.net

(유)시엘 대표 김형기 청동, 알루미늄, 스텐 주물, 원형 점토 작업, 석조각, 제작 시공 업체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역사연구기록관 착공

본교 발자취 한곳에...역사연구기록관 첫삽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이희범·67전자공학)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울대학교 역사연구기록관이 드디어 착공한다. 서울대학교와 총동창회는 지난 11월17일 역사연구기록관이 들어서서 옛 75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옛 대학신문 건물(75동)을 허물고 재건축을 통해 마련되는 역사연구기록관 건물은 연면적 1만890㎡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27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단법인 관악회에서 100억원을 지원한다. 출연금에서 113억원, 농생대에서 60억원이 마련됐다. 재단법인 관악회가 지원하는 100억원에는 서정화 전 총동창회장을 통해 마련된 한화의 기부금 5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건물에는 역사연구기록관 외 대학신문, 농업생명과학대학 R&D 센터 등이 입주한다. 총동창회 사무실도 이 공간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 1층에 수장고가 마련되며 1층에 상설전시관이 들어선다. 역사연구기록관은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연구기록관 논의는 임광수 회장 임기 마지막 때 나와 2014년 서정화 회장 취임 시 50억원 기부 의사를 밝히며 구



체화됐다. 역사연구기록관을 어디에, 얼마만 한 규모로 지을 것인가를 두고 서울대학교 측과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쳤다. 관악캠퍼스가 건물로 포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공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러다 오세정 총장 취임 후 2019년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해 현 대학신문 건물(75동)을 재건축해 역사연구기록관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후 설계 공모, 시공사 선정, 본건물 철거 등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됐다. 설계사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맡았고, 시공은 태안건설과 화성종합건설이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역사연구기록관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단일 건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건물명도 75동, 통합명칭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양호한 기록관장은 “재원 마련,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단일 건물로 짓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기록관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건물 앞에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고 본부측에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서울대학교의 사료를 한 곳으로 모으고 상설전시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앞으로 기록관이 더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연구기록관에는 대학 창설 및 국내안 기록 384건, 6·25전쟁 부산 가교사 사진첩,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 기록 150건, 학장회의록(1953~2009년), 학생운동 관련 기증 기록 1554건 등 서울대학교의 주요 기록물들을 상시 전시할 계획이다. 총동창회와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80여 동문으로부터 5000여 점의 박물관, 사진·앨범류, 학술·간행류, 문서류 등을 수집한 바 있다.

12월 조찬포럼

- 일시 : 12월 9일 (목) 오전7시30분
- 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 강연자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우리의 대응 : 2022년 경제전망과 과제
- 참가인원 : 40명 이내(선착순)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12월 수요특강

- 일시 : 12월 22일 (수) 낮12시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前포스코전략대학 석좌교수
- 주제 : 역경! 논어에게 길을 묻다
- 참가인원 : 40명 이내(선착순)
- 참가비 : 무료 (음료 및 도서 제공)

2022. 2월 신년인사회 겸 조찬포럼

- 일시 : 2월 10일 (목) 오전 7시30분
- 장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 강연자 : 국무총리·동창회장·총장
- 주제 : 2022년도 국가·동창회·학교·운영방향
- 참가인원 : 200명 이내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 1년간 4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2022. 2월 수요특강

- 일시 : 2월 23일 (수) 오전7시30분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 참가비 : 무료 (음료 및 도서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 이메일 member@snu.or.kr로 접수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 신청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올해 동창회비를 납부한 분만 신청 가능

회비입금내역(2021.11.1-11.30)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    |               |
|-----|----|---------------|
| 연회비 | 회원 | 3만원(평생회비30만원) |
|     | 임원 | 회장 100만원      |
|     |    | 부회장 30만원      |
|     |    | 이사 10만원       |
| 찬조금 |    | 상시 환영         |

동창회 SNS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찬조금

- 최명애(70회화) 300,000원 ● 이민주(76회화) 471,600원

광고후원금(E-NEWS)

- D-Pack 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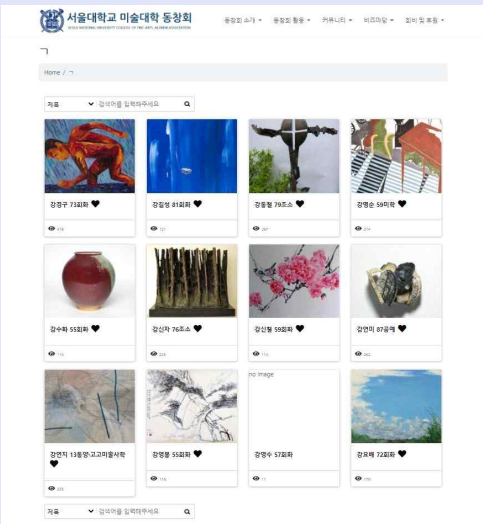
연회비

- 회원 30,000원
- 강명순(59미학) ● 권문웅(64응미) ● 김은희(83동양)
- 박광철(57미학) ● 박수용(90공예) ● 박재은(63회화)
- 서효숙(81회화) ● 이은재(07서양)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아카이브에는 현재 700여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횟수는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5만5천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재대상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등 실적물까지 확대해 전 동문의 아카이브를 제작중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리고 기존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요청시 수정, 보완해드립니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snuarta@naver.com  
자료: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이나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금년도 회비납부회원(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왼쪽상단)  
문의 : 02-555-1946

동창회 전화번호가 02-555-1946으로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번호 1946은 모교가 창립된 해인 1946년을 기념하는 번호입니다.

제 16기

서강대 경제대학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미래경영자를 위한

글로벌(Global), (Ethics), & (Humanity)

Genh.kr

서강대학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02)705-7914 / genhsogang@hanmail.net

041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 글로벌 EnH최고위과정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글로벌 미래, 윤리경영·인문학(G-EnH) 최고위과정에 초청합니다.

본 과정은 기업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과 준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한국감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든 시대, 대격변의 글로벌 환경에서 리더는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경제와 준법 경영, 인문학과 건강을 융합한 G-EnH 최고위과정은 서강학파로 명성 높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교수들과, 경영, 인문, 철학, 역사, 과학, 건강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본 과정은 최고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건전한 거버넌스 등의 필요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한 윤리준법에 대한 가치관을 배양하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최고 심화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동참하시어 그동안 배출된 1,000여 명의 저명하고 훌륭한 원우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ECA(Ethics Compliance Auditor)’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감사협회 회원인 경우 ‘윤리준법 감사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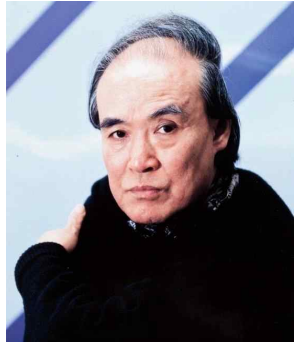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총장 박종구

한국감사협회

최강 문태홍

예술원회장 선출 유희영(58회화)



서양화가 유희영 동문이 지난 11월24일 개최된 대한민국의 예술원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총 2년간이다. 충남 서천 출신인 유동문은 모교 4학년때 대한민국전람회(국전)에서 특선을 한 이후 문화공보부장관상 2회에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른나이에 추천작가에 올라 추천작가상을 수상했다. 이후 경희대 미술교육과 교수, 이화여대 미술학부 교수 및 조형예술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자문

위원장,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2005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2009년 대한민국 미술인상과 2013년 5.16민족상 예술부문을 수상했으며 2006년부터 대한민국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부터 충북 옥천의 새로운 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유동문은 자연 속 생활에서의 사색의 경험들을 색면추상으로 녹여내고자 했으며, 그의 작품은 구성적인 아름다움을 초월한 내면의 본질을 관철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기하학적인 면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렬한 색채는 유화물감을 겹겹이 발라 올리고 여러 번의 색조합을 거쳐서 제작된 것으로 이러한 조색법은 화면 안에서 유화물감 그 자체의 물질성을 넘어서는 감흥을 이끌어낸다. 유동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북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의 주요 미술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안전미술문화대상 선정 김병중(74회화)



사단법인 안전기념사업회(이사장 신응식)는 서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안전미술문화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회 안전미술문화대상에 김병중 동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동문은 지난 40여 년간 모교에서 전통 미술의 현대화 교육에 매진하고 평생 제작한 본인의 작품을 도서지역에 기부했으며, 국제 아동 구호 기금 유니세프에 예술인으로서 최초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30여회가 넘는 개인전을 가진바 있는 김동문은 전통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독창적 화풍을 정립하여 바보예수, 생명의 노래, 풍죽, 송화분분 등의 작품을 발표하고,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

평생 제작한 작품 400점을 기증했다. 그의 작품은 영국 대영박물관, 로열 온타리오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울대에 방문했을 때 당시 총장이 김동문의 작품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동문은 “부족한 제게 영예의 수상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 안전기념사업회와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 훌륭한 상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안전미술문화대상은 세계적인 걸작 몽유도원도를 그린 서산 출신 안전 선생의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현저한 공적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가 있는, 미술계 전반에 공이 큰 인사 한 명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신응식 안전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이영수 전 단국대 예술대학장, 한용상 한국예총 서산지회장, 박수복 한서대 예술인문 노블레스 최고위과정 주임교수가 참석했다.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이용덕(77조소)



서울대학교가 지난 10월 28일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시상식을 열었다. 서울대는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쏟는 등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해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해 학술연구교육상을 2005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의 학술연구교육상 수상자는 조소과 이용덕 동문, 불어불문학과 신은영 교수, 생명과학부 최희정 교수, 경영학과 이경미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이종민 교수,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 수학교육과 이경화 교수, 의학과 임재준 교수, 법학과 이계정 부교수, 지능정보융합학과 이종식 교수이다. 이동문은 <작품연구: 소조>를 담당하여 재료 중심

으로 편성되었던 교과과정을 창작 개념 및 맥락(Context)을 중심의 학생 주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하였다. 전통적 기법과 재료를 넘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기법과 재료를 접맥, 차세대 작품 표현의 다양성과 효율, 높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교과를 개발하고 발전시켰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서울대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서울대는 올해 학술연구 교육상(교육부문) 수상자의 우수 교수법을 공유하기 위해 11월부터 수상자 별 특별강연회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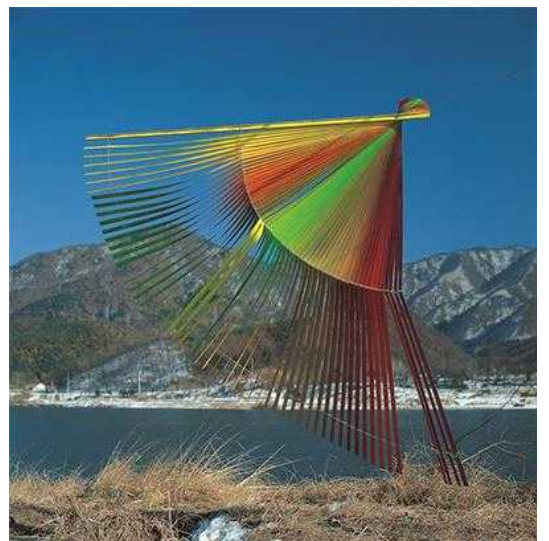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기증 공성훈(83서양/1965~2021)



공성훈 동문의 작품 및 자료들이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에 기증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과천관 미술연구센터와 2014년 서울관 디지털정보실 개소 이래,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연구·보존하고 있다. 공동문을 비롯해 올해 대거 기증된 배만실, 김상구 자료는 미술연구센터와 디지털정보실에서 정리·해제·기술(記述) 작업을 완료한 후 일반에 원본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기증 자료는 유족에 의해 기증되었으며, 작품 관련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 시청각자료와 작품 드로잉, 전시인쇄물, 간행물 등 7천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작가 및 미술사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기증자분들께 감사

드리며, 올해 하반기 수집한 중요 자료들이 현대디자인사와 한국현대판화사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문은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산업대학에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다. 1990년대 주로 기계를 이용한 설치작업이나, 영상작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1998년 이후로는 회화로 장르를 바꾸어 현대인의 삶의 단면을 드러내는 풍경화 작품들을 발표했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작가상’, 2018년 ‘제19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성균관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 작품소개 Contact—우리뿐인가? 이상길(83조소)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걸어서 1분 정도 가면 33층 짜리 포스트타워(여의도우체국 청사)가 있다. 건물 앞 공개공지에 이상길 동문의 2020년 작품 'Contact-우리뿐인가?'이 있다. 우주인이 커다란 구위에서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이라도 한 듯 한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우리뿐인가?'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미지의 세상탐험에 나선 사람들이 자신들뿐임을 확인하고는 허탈해하는 모습도 느껴진다. 구는 스테인리

스 스틸로, 우주인은 브론즈로 제작했다. 구는 가느다란 철 조각들을 용접으로 연결했다. 우주인들이 위치한 구의 시작부위에는 LED조명이 들어가 있어 밤이 되면 빛을 낸다. 작품제목인 소통이나 교감을 표현이라도 하듯 스테인리스 재질이 일조량에 따라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고 있다. 접촉, 소통을 주제로 1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문의 어릴 적 꿈은 천문학자였다. 우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린 마음에 미래로 진로를 바꿨으나 우주에 대한 관심은 우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기회가 되면 직접 우주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그는 "별처럼 반짝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소개한다. 작품 안내판에는 "유명한 우주인의 모습에서 무언의 또다른 희망을 상상해본다"고 적혀 있다.

## 철조망, 평화가 되다 권대훈(90조소)



'철조망, 평화가 되다' 작품 전시회가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리고 있다. 통일부에서 주최한 이번 전시는 모교 교수 권대훈 동문이 작품 제작과 설치를 맡았다. 작품 제작에는 모교 학생들도 참여하여 이번 평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했다. 전시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서 쓰였던 폐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136개 십자가가 한반도 형상을 만드는 작품과 한반도의 DMZ 및 작품의 기획의도와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이 함께

전시된다. 십자가의 개수인 136은 1953년 휴전 선포 후 서로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의 68년을 합한 숫자로, 두 개의 68년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루자는 간절한 염원을 반영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개관행사에 참여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작품에 마지막 점등을 함으로써 작품을 함께 완성하고, 바티칸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했다. 평화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한반도형상 작품은 내년 부활절에 명동성당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 졸업후 영국 UCL슬레이드 미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1년 영국왕립미술원 '잭골드힐조각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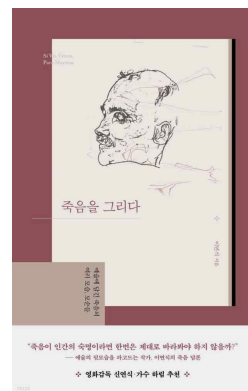


## '죽음을 그리다' 출판 이연식(90서양)



이연식 동문이 신간 『죽음을 그리다』를 선보였다. '예술의 뒷모습을 파고드는 작가'라는 수식답게 '괴물', '멜랑콜리', '위작' 등 독특한 주제를 내세운 미술 책을 여러 권 써 온 이동문은 이번에는 '죽음'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림과 조각 등 예술에 나타난 죽음의 여러 모습을 다룬 이번 신간은 다소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놓인 유머와 재기발랄한 질문들이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언젠가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책을 써 보고 싶다는 바람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는 이동문은 인터뷰를 통해 "아

버지의 죽음을 비롯해 가깝고 먼 죽음들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집필에 몰두할 수 있었다. 죽음에 얽힌 인간사는 온갖 사연으로 가득하기에 하나의 이미지 혹은 정형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신간에 대해서는 "『죽음을 그리다』는 '이미지'라는 구체적인 물질로 죽음의 온갖 모습을 살펴보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이후 미술사가로 예술에 대한 저술, 번역,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이연식의 서양 미술사 산책', '예술가의 나이듦에 대하여', '불안의 미술관' 등이 있다.



# Newer Art

새 시대 아트 스튜디오

대표이사 유영쾌

Cell : 010-5229-4583

Tel : 031-902-1597

Fax : 031-901-1597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한신메트로폴리스 2층 207호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05번길 96-6 가동

E-Mail : ssd88s@naver.com

Homepage : www.newerart.com

인스타그램 : @newerart\_studio

화가의 비망록 박노수(46회화/1927-2013)



화가의 비망록  
The Painter's Memorandum  
OPEN\_2021. 10. 11.

로 기획되었다. 패션 사진계를 대표하는 작가 조선희는 박동문의 청아한 작품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개관 8주년을 맞아 기념전시 <화가의 비망록>이 개최된다. 박노수미술관 개관 이래 아홉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박동문과 사진작가 조선희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화가와 관람자 사이 40년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패션 사진계를 대표하는 작가 조선희는 박동문의 청아한 작품

세계를 경외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으며, 그의 예술관이 녹아있는 가옥 전체를 탐색하고 그 흔적을 프레임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희의 작품 외에도 박동문의 '산'을 포함해 특유의 원색적이면서도 맑은 색채가 돋보이는 여러 작품과 도서, 삽화표지화 등 각종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또 공들여 가꾼 정원에서부터 박동문이 수집했던 다양한 소품과 석물, 정원석·수석 등 미술관 곳곳의 다양한 볼거리도 눈길을 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개관 8주년 기념전시를 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노수미술관은 한국 미술계의 거장 남정 박노수 화백이 평생에 걸쳐 그려온 작품들과 40여년을 거주하며 가꾼 가옥과 정원, 소장해 온 다양한 고미술·골동품 등 천여 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설립됐다.

시대의 선구자들 홍성문(50조소/1930-2014)



작고한 조각가 홍성문 동문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한 전시 <시대의 선구자들>은 홍동문을 비롯한 서동균, 주경, 최근배, 정점식 등 향토 미술의 토대를 닦은 작가들을 연구한 전시회이다. 오늘날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들이 존경하는 작가 1순

위로 꼽는, 대구 조각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 바로 홍동문으로, 홍동문은 한국 현대조각 제2세대로, 대구 조각의 선구자로 손꼽힌다. 대구지역에서 '조각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홍동문이 최초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주로 인체를 바탕으로 조형성을 실험했고, 나무, 철, 브론즈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인간애의 따뜻함을 표현했다. 홍동문은 모교 졸업 후 계명대 대학원에서 조소를 공부했으며 국전 특선 4회와 문공부장관상 수상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효성여대 회화과 교수, 영남대 미술대학 교수와 학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국민훈장모란장과 경상북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구순(九旬)을 사는 이야기 최종태(54조소)



최종태 동문이 '구순(九旬)을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서울 평창동 김종영미술관에서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대 회고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조각, 드로잉, 판화 77점을 선보인다. 에세이집과 도록 24권도 전시해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최동문

은 서양 추상 미술이 풍미하던 시절에 미술 학도로서 공부했지만 다른 길을 걸었다. 평생 인물을 작품 제재로 삼아 조각과 회화로 구현했다. "중학생 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었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간상에 대

해 충격을 받았지요. 어려서 일본제국주의 신민으로 살았음에도 해방 때까지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 6·25전쟁과 4·19혁명 등을 겪었던 것도 큰 영향을 줬어요. 삶을 내 예술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지요." 세상사에 시달리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창작 동기였던 셈이다. 인물 조각상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 그는 "형태를 추구하기보다 인생을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영미술관 박춘호 학예실장은 "최종태 작가의 작업 여정을 보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예술의 근본임을 깨닫게 된다"며 "이번 전시가 노(老) 조각가의 연륜이 쌓인 통찰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시문화상, 충청남도 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고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며 김종영미술관 명예관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곽훈(59회화)



제33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자 곽훈 동문의 수상기념 전시회가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렸다. 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도 문화적 뿌리를 지속 탐구해온 곽동문은 이번 수상 기념전에서 근작 '할라잇(Halaayt)' 연작을 중심으로 원초적 생명력 넘치는 회화 세계를 선보였다. 대구 달성 출신인 곽동문은 경북고와 모교를 거쳐 미술교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

로 유학, UCLA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초대작가 등 40여 년간 회화·조각·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국제적 성과를 이뤘다. 곽동문은 4일 열린 제33회 이중섭미술상 시상식에서 "이중섭 그림으로 미술을 접했는데 '이중섭미술상'까지 받게 되니 신기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축사는 곽동문의 작가론을 집필 중인 올리비에 들라발라드 '프랑스 도멘 드 케르게넥미술관' 관장이 맡았다. 그는 "곽훈은 독자적인 화풍을 갖고 있는 드문 작가"라며 "동년배인 한국 단색화 작가군에 흡수되거나 동화될 수도 있었지만 타국에서 홀로 작업하며 비로소 자기 고유의 문명에 천착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상상력으로 회화 연구에 매진하는 화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흙, 마음의 자리, 사랑의 지평 허민자(63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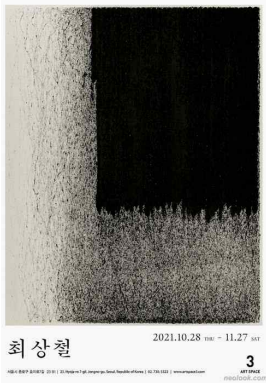


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허동문이 일생 동안 작업했던 도예작업들과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가 제주 1세대 도예가 허민자 동문의 성과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도록 <흙, 마음의 자리, 사랑의 지평>을 출판하고,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심현갤러리에서 출판기념전시회를

그 스타일, 그리고 삶의 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허동문은 제주의 화산 지형을 염두에 두고서 공예조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자연물을 인체로 해석하여 작업했다. 또한 제주도 전통 용기를 현대에 알맞게 융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실용성과 예술성을 같이 고민하면서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자 공예로 풀어갔다.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관계자는 "도예가 허민자 선생님은 바로 예술이 필요한 곳에 피는 향기로운 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의 예술 문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허민자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1967년 모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허동문은 71년 고향인 제주에 돌아가 75년부터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응용미술을 가르쳤고, 1988년에는 산업디자인학과를 신설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무물(無物) 최상철(65회화)



최상철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아트스페이스3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최동문은 조약돌을 1천번 굴려 완성한 신작 14점을 선보였다.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우연의 법칙에 따라 완성된 작품은 저마다 뚜렷한 조형미를 드러낸다. 검은색만으로 이뤄진 추상화이기에 최동문의 작품은 단색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예술적 기교보다는 우연과 간단한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제작과정에 예술, 그림에 대한 작가의 깊이

있는 성찰이 담겨있고, 수행과도 같은 1천 번의 굴림에는 고도의 집중과 노력이 따른다. 최동문은 "흔히 말하는 잘 그린 그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계적인 미술관에 그런 작품들이 소장돼있다"며 "그런데 나는 그림이란 것이 잘 그리기만 하면 좋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오래전부터 가졌다. 그래서 잘 그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이래 50여 년간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일구었다. 특히 최근 20여년간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는 실험을 계속했다. 평론가 박검숙은 "최상철은 그리지 않음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며 "작가는 어떠한 인위적인 더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마주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왔고, 끊임없이 시도해온 결과물이 바로 '무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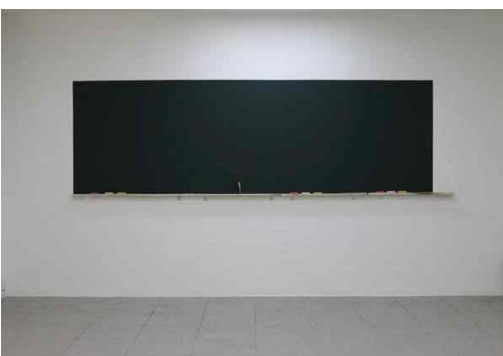
숲 그림자 이선원(75회화)



한지 작가 이선원 동문의 개인전 <이선원 展 – 숲 그림자>가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남 여수에 위치한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열린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번 전시는 이동문의 다양한 조형 언어를 관람자 개개인이 다양한 시선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나무, 식물, 종이 등의 재료를 이용한 작품 25점이 전시된다. 이동문이 사용하

는 자연 재료와 장도의 환경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감성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울마루 관계자는 이동문의 작품에 대해 "자연 재료를 이용한 작업에 다시 물감의 우연적인 삼투와 번짐의 효과를 얹히면서 자연스러움, 의도되지 않은 연출의 미학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이동문은 1980년대 후반부터 닥 펄프, 한지 등을 해체하고 다시 밀착시켜 압인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닥 펄프를 물에 담가 풀어내고 그렇게 풀려난 닥 펄프의 섬유질을 재구성, 색을 입히는 작업 등을 통해 자연 재료 자체의 색감과 물성을 작품으로 드러낸다.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대학원을 졸업한 뒤 수원대 미대에서 20년간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국내 대표 한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살림에 대하여 허구영(78회화)



허구영 동문의 개인전 <‘살림’에 대해서>가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 28일에 인천해사고등학교 내 ‘갤러리 마리타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14개의 작품은 모두 신작으로, 수명을 다한 사물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들이다. 허동문에

게 있어 ‘수명을 다한 사물’이란 미대 졸업생들이 학교에 버리고 간 그림, 미술대학의 작업장 주변에서 습득한 물건, 작업실 책상 서랍 안의 잡다한 물건 같은 것들이다. 허동문의 작업은 이러한 사물들 중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골라서 만져보고, 구석구석 바라보고, 이리저리 옮겨보거나 분류하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배열,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드러낸다. 허동문에게 ‘살림’이란 그가 살아가는 일, 즉 작업하는 형편을 의미하며, 동시에 폐기된 물건을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살려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허동문은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목원대 서양화 전공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불사조는 재로부터 나올 것인가?>(사이아트갤러리,2012), <나... 나...나...>(갤러리소소, 2018), <여전히 나에게 뜨거운 이미지 중 하나>(아르코미술관, 2019) 등 20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맑은듯 다른 2인2색전 김형진(80회화)·김다운(09동양)



이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인 40여 점의 작품들은 시적 상상을 담은 이미지들로 구성되었다. 민들레 홀씨, 달, 두꺼비, 꽃반지, 네잎 클로버 등의 소재에는 작은 것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 내재된 서정성을 중시하는 김형진 동문의 태

맑은 듯 다른 분위기의 아버지와 딸이 한 공간에서 각각 개인전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김형진 동문과 그의 딸 김다운 동문의 개인전이 기린미술관에서 열렸다. 김형진 동문

도가 담겨있다(왼쪽사진). 한편, 딸 김다운 동문은 <오늘이 설레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맑은 느낌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였다(오른쪽사진). 때에 따라 변하는 바람과 빛 등 아름다운 오늘의 시간들이 김다운 동문의 작품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드러났다. 전시는 찻잔의 형태를 강조하는 실루엣 시리즈와 오늘의 모습을 긍정하는 의미를 담은 화훼 시리즈로 구성되었다. 김형진 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독일 하노바, 일본 나고야, 중국 상해, 캐나다 토론토, 일본 오사카, 미국 LA 등 국제무대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김다운 동문은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으며 그동안 네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춘천의 ‘르 보자르’를 꿈꾸며 이광택(80회화)



이광택 동문의 개인전 <춘천의 ‘르 보자르’(아름다운 예술)’를 꿈꾸며>가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춘천의 '문화공간 역'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 인간의 삶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는 시도를 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그려왔던 무거운 느낌의 유화를 내려놓고, 연필, 수채, 아크릴 등 가벼운 느낌의 재료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이번 전시작품 120점 가운데 110점이 모두 1년 안에 완성된 신작들이다. 이동문의 배우자나 동료 등 주변인을 그린 인물화부터 밑그림인 에스키스까지 여러 장르가 망라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지역 곳곳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동문은 “오래된 풍경이나 골목, 인물 등을 보다 보면 추억과 세월이 더해져 묘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도 아름다운 골목이 있다는 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사물의 아름다움을 새삼 반추하는 시간으로 삼아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졸업 후 중국 사천미술학원 대학원에서 유화과를 졸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時節因緣(시절인연) 이정선(83회화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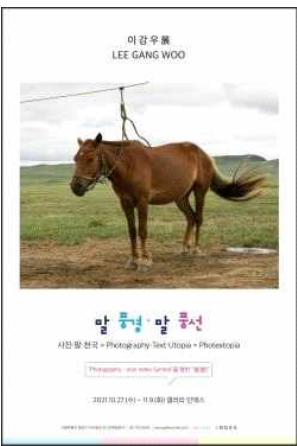
이정선 동문의 개인전 <時節因緣(시절인연)>이 인천시 중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한동안 작업에서 한 발 떨어져 명상과 사유를 통해 자신을 담금하던 이동문이 마침내 붓을 들고 발표한 이번 전시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인과법칙에 따라 발생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내재되어있다. 이동문의 작품은

담지 않은 듯 담겨 있는 화면과 그리지 않은 듯 그려져 있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작품에는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 무한하게 확장된 작가의 우주가 드러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사유를 느끼게 한다. 이동문은 전통 한지 위에 오로지 자연염료만으로 작업하는데, 때문에 색의 다양성이나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식 덕분에 예상치 못한 효과와 기쁨을 얻기도 한다. 이동문은 이런 작업 과정을 통해 인연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다잡으며 수행하듯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독일 Tuebingen, Osnabrueck University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6회의 개인전과 인천한국화 젊은 세대전, 수렴과 발산전, 인천미술협회전, 동상이몽전 등으로 활발히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말 풍경·말 풍선 이강우(83서양)

이강우 동문의 개인전 '말 풍경·말 풍선'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덱스에서 열렸다. '사진 ↔ 아이콘-인덱스-심벌'에 관한 '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동문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는 순간 거의 동시에 지각하는 '시각기호들'과, 각각에 명명된 '언어들'이라는 두 속성의 상호 관계성과 차이를 탐구했다. 이동문은 본인이 도출한 내용을 개념적 형식으로 시각화하거나 메타비평적인 관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상징적 속성이 다분한 사진들과 인덱스적 속성이 두드러진 사진들을 전시에 함께 구

성했다. 이동문은 작가의 말에서 "그대(사진)는 이 시대의 생생한 화석이자 기념비로 칭송받는다. 그런 만큼 그대는 어떤 절대자로서의 성상에 비견될 만하다. 그러하기에 그대는 내게 경외의 대상"이라며 사진을 자신의 숙명적 동반자로 묘사하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예대 디자인학부 사진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까지 26회 개인전을 개최했고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했다.



부감시점(俯瞰時點) 이종송(83동양)



이종송 동문의 초대전 <부감시점(俯瞰時點)>이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3층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오대산 비로봉과 설악산 대청봉 등을 표현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동문의 그림은 미술적 규칙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사실과 추상 등 서로 마주보는 요소들의 경계를 허물면서 보이는 풍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풍경을 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주관적 경험에 의한 풍경을 그려왔다. 이동문은 최근에 동일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천연안료의 색상

과 풍경이 주는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천연염료인 쪽의 깊고 푸른색을 사용해 하늘과 우주, 바다를 포함할 수 있는 깊은 느낌을 준다. 이동문에게 푸른색은 초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깊은 심연의 색이다. 이종송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산 그림은 대부분 '블루'다. 산 전체가 블루다. 다양한 블루가 숲이 되고 숲을 흐르는 바람이 되고, 움직이는 산의 빛깔이 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 1991, 199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우리 사찰의 벽화기법을 기반 삼아 흙벽화로 표현한 작품을 제작해 왔다. 천연안료와 벽화기법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캐나다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중·고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국내외서 42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에 출품했다.

FOUNTAIN 정진서(98조소)



밀랍을 소재로 독자적인 작품을 선보여 온 정진서 동문의 6번째 개인전 'FOUNTAIN'이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갤러리J(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5)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이번 전시에 대해 "평면의 회화지만 물질을 다루는 조각처럼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로, 사진과는 다른 감동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동문은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입체 위주의 작업을 해 오다 밀랍화 장르를 접한 뒤 재료 자체가 주

는 순수함에 매료돼 밀랍을 이용한 평면작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정동문은 "밀랍은 100도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며 작업해야 하는 등 다루는 방법이 까다로워 유화, 아크릴과 같은 재료들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재료가 가진 물성의 특수함과 조각적인 표현 등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약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10호부터 100호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전시에 대해 김가원 오갤러리 디렉터는 "정진서 작가의 'FOUNTAIN'에는 생명의 다양한 온도가 녹아 있다. 그가 '어디선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으로서의 'FOUNTAIN'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작품 속에는 터져 나오거나 뿌려졌다기보다는 깊게 녹아있는 감정들, 생각들,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다.

땅이 부르는 노래 허보리(99서양)



허보리 동문의 개인전 《땅이 부르는 노래 Melody of Earth》가 갤러리 나우에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허동문이 제주에서 1년간 살며 본 꽃과 풀을 경쾌한 붓 터치로 표현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었다. 허동문은 "식물이 물을 빨아올리고 뜨거운 태양을 따르고 비바람을 견뎌내는 모습에서 부지런히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렸다"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하는 식물들의 모습에서 감동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동문은 인물화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꽃을 그린다. 작품의

제목도 <신사동 목련>, <꽃집여자>, <뒤를 보는 여자들> 등 인물화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다양한 사물이 등장하는 그림을 통해 사람 사는 모습을 재치 있게 드러내는 것이 허동문 작업의 특징이다. 한편 허동문은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딸로,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화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생활의 발견'이라는 주제의 작품과 패브릭을 소재로 한 설치작품, 2020년의 '꽃의 초상에 이어 이번에는 유화를 비롯한 수채, 과슈드로잉을 포함한 총 41점을 선보였다.



VIVID CUTS    최고은(03조소)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태원동 P21에서 최고은 동문의 개인전 'VIVID CUTS'가 열린다. 그는 일상적인 사물의 형태와 색감, 구조, 재질 등 사물을 구성하는 조건을 해체하고 재배치해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작품들을 주로 발표해왔다. '

토르소(Torso)'라는 제목의 작품을 통해 에어컨과 서랍장의 다리, 문짝 등을 제거하고 속이 비어 있는 형태를 제시하는 식이다. 전시장에서는 동파이프를 잘라낸 '컷'(2021), 파이프를 잘라낸 '트로피'(2021), 카세트테이프 관련 제품들을 변형시킨 '케미컬 시리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평소 주위에서 접할 수 있던 사물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형미를 발하는 풍경이 흥미롭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토마스 파크 갤러리와 김종영미술관, 문화역 서울 284와 아르고 미술관, 아트선재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두산갤러리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이번 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한다.

가이아-파트3 : 트윈스    신재은(04조소)



신포동 '차(茶)스튜디오'에서 신재은 동문의 개인전 <가이아-파트3 : 트윈스>가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18년부터 선보여온 '가이아'시리즈의 3탄이다. 신동문은 '가이아'시리즈를 "매년 뉴스에 보도되는 돼지 살처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상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돼지는 음식쓰레기나 인분의 처리, 장기이식, 콜라겐 추출 등을 위한 도구로만 여겨져 왔다"며 "정작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돼지라는 동물 자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한다. <케이크>(2021)는 돼지머리를 마치 케이크처럼 나이프로 잘라 먹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작품이다. <트윈스>(2021)는 돼지를 인간의 쌍둥이 형제로 상정한 일종의 시나리오 작품이다. 신동문은 "돼지는 장기 이식에 사용될 정도로 유전체나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 생리 특성이 인간과 비슷하고, 3~4세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졌으며, 인간과 식성이 유사하지만 인간과 돼지 사이에 형제애는 없었다"면서 개인전 <트윈스>를 "인간 중심적 사회에서 지나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포식자와 피식자의 불편한 관계를 꼬집는 전시"라고 밝혔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12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에 초대되었다. 대표적인 그룹전은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사비나미술관),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성산아트홀), <공감본능>(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다.

온전한 원을 향하여    양수연(07동양)



지난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CICA미술관에서 양수연 동문의 개인전 <온전한 원을 향하여>가 개최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인 생과 죽음,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회화적 언어로 시각화하는 양동문은 전통 재료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재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통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모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MFA 과정을 졸업했으며 올해 2021년에는 가송예술상 입선, Ashurst Emerging Artist Prize Highly Commended(영국)을 수상하였다. 지금까지 2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국내외 그룹전, 아트페어에 참여하였다. 현재 서울과 홍콩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가능’  
‘박스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 BOX 가격표 |       |       |        |       |        |       |        |
|---------|-------|-------|--------|-------|--------|-------|--------|
| 호       | 가로    | 세로    |        |       |        |       |        |
|         |       | F(인물) | 가격     | P(풍경) | 가격     | M(해경) | 가격     |
| 1       | 22.7  | 15.8  | 5,000  | 14.0  | 4,500  | 12.0  | 4,000  |
| 2       | 25.8  | 17.9  | 6,000  | 16.0  | 5,500  | 14.0  | 5,000  |
| 3       | 27.3  | 22.0  | 7,000  | 10.0  | 6,500  | 16.0  | 6,000  |
| 4       | 33.3  | 24.2  | 8,000  | 21.2  | 7,500  | 19.0  | 7,000  |
| 6       | 40.9  | 31.8  | 9,000  | 27.3  | 8,500  | 24.2  | 8,000  |
| 8       | 45.5  | 37.9  | 10,000 | 33.4  | 9,000  | 27.3  | 8,500  |
| 10      | 53.0  | 45.5  | 12,000 | 40.9  | 11,000 | 33.4  | 10,000 |
| 12      | 60.6  | 50.0  | 14,000 | 145.5 | 13,000 | 40.9  | 12,000 |
| 15      | 65.1  | 53.0  | 16,000 | 50.0  | 15,000 | 45.5  | 14,000 |
| 20      | 72.7  | 60.6  | 18,000 | 53.0  | 17,000 | 50.0  | 16,000 |
| 25      | 80.3  | 65.1  | 20,000 | 60.6  | 19,000 | 53.0  | 18,000 |
| 30      | 90.9  | 72.7  | 25,000 | 65.1  | 23,000 | 60.6  | 20,000 |
| 40      | 100.0 | 80.3  | 30,000 | 72.7  | 28,000 | 65.1  | 25,000 |
| 50      | 116.7 | 91.0  | 35,000 | 80.3  | 33,000 | 72.7  | 30,000 |
| 60      | 140.0 | 97.0  | 40,000 | 89.4  | 38,000 | 80.3  | 35,000 |
| 80      | 145.5 | 112.1 | 45,000 | 97.0  | 40,000 | 89.4  | 38,000 |
| 100     | 162.1 | 130.3 | 50,000 | 112.1 | 45,000 | 97.0  | 40,000 |